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

- 〈絶義歌〉, 〈五友歌〉(竹), 〈竹尊者傳〉, 〈抱節君傳〉을 중심으로 -

유종국(전북과학대)

〈목 차〉

- | | |
|-----------------|--------------------|
| 1. 緒論 | 3.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 |
| 2. 관념화한 대나무의 德性 | 4. 結論 |

〈국문 초록〉

대나무의 성질이 관념화되고 다시 擬人化되어 인간적인 德性으로 轉化되어 淸德, 孤節, 正直, 剛健, 義理, 不變, 眞實 등의 추상적인 관념화 과정을 거친 후, 문학작품 안에서 선비, 君子, 大夫, 志士, 忠臣, 烈士(烈婦), 高友 등으로 의인화되어 문학작품 안에서 형상화된 예가 있다.

시조 〈絶義歌〉는 대나무의 剛直과 常靑을 강조하여 그것이 절개, 정의로 관념화되어 淸德과 孤節을 지닌 志士로 문학적인 형상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작가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五友歌〉(竹)는 곧기가 어느 草木 못지않게 剛直하고 虛心을 漸層法으로 강조하고서 절개와 충성으로 관념화하고 작품에서 절개 있는 忠臣으로 인격화되었다. 假傳體 文學인 〈竹尊者傳〉은 慧諷에 의해 대나무 자체를 소재로 하여 孤節과 淸虛의 성질이 假傳體에 寄託하여 관념화되고 孤節과 淸虛의 禪師를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竹尊者傳〉에서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그 德性을 찬양하면서 불교 수행자로써 자신의 道를 표출하였다. 〈抱節君傳〉은 대나무를 擬人인 抱節君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평생토록 변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한 선비의 절의를 칭송한 작품으로 절개 있는 忠臣으로 의인화시켰다. 이 작품은 작가 丁壽崗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유사하게 꾸며진 것이라서 마치 작자 자신의 自敘傳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나무를 君子, 尊者 등으로 인격화된 別稱으로 부르기도 하듯이, 대나무를 소재로 인격화하여 작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이상의 문학작품들은, 첫째 대나무 그 자체를 소재로 하고, 둘째 剛直, 虛心, 常青의 성질을 淸德, 孤節, 忠誠으로 관념화하였고, 셋째 淸德, 孤節, 忠誠의 관념이 志士, 忠臣, 君子로 인격화시켰으며, 넷째 관념화되고 인격화된 대나무가 작가 자신과 同一視하거나 자신의 分身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대나무, 관념화, 인격화, 문학적 형상화, 강직, 절개, 충신, 군자.

1. 緒論

모든 사물은 나름대로의 속성이 있다. 질경이는 人馬의 발굽으로 밟혀도 살아남아 질긴 성질을 지니고 있다면, 대나무는 風霜과 氷雪에도 굽지 않고 곧은 성질이 있다. 은행나무는 겨울이면 잎이 떨어져 裸木이 되는 성질이 있다면, 대나무는 사철 푸른 성질이 있다.

인간은 사물의 외형에 나타난 성질을 보면서 사물의 내면적인 속성을 말하였다. 이를테면, 질경이의 질긴 생명력, 여우의 간교함, 脫兎의 機智, 대나무의 절개가 그것이다. 식물의 가장 커다란 생존의 고난인 氷雪寒風 속에서도 변색하거나 굴절하지 않는 대나무는 그러한 성질로 인하여 사람들은 四君子에 포함시켰다. 그 특성은 인륜의식과 결부되어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문학 등 예술적인 소재로 쓰기도 하였다.

대나무는 일상적으로 우리말 “대”, “대나무”, 漢字 “竹”이라고 한다. 『說文解字注』에서는 “초”(艸) 자를 뒤집은 모양이라고 “죽”(竹)을 풀이하기도 하였다.¹⁾ 대나무에 대한 여러 異稱이 있다. 대체로 대나무의 속성과 관련하여 붙인 別稱으로, 此君²⁾, 妬母草³⁾, 抱節君⁴⁾, 尊者⁵⁾, 故人⁶⁾ 등으로 불린다. 또한 대나

무의 德性을 愛好하여 다른 사물과 아울러서 四君子, 歲寒三友, 三清友, 清友, 寒友, 五友 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古來로 詩人墨客들은 사물의 성질을 인간의 그것에 견주어 의미를 부여해 왔다. 이를 擬人 혹은 擬人化라고 말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비인격적인 사물의 성질이 추상적인 관념에 의하여 인격적으로 다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순 교수는 擬人에 대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擬人이란 예술에 있어서 비인격적인 事象이나 神, 영혼, 관념 혹은 동식물, 무생물 등에 대하여 생명이 없는 것은 생명을 부여하고 형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인격화하는 일체의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⁷⁾

본고의 범위는 문학사상 대나무 소재의 문학작품이 많기 때문에 첫째, 대나무를 하나의 요소로서가 아니라 대나무 자체를 주된 소재로 삼아 의인화한 작품에 한정하고, 둘째 대나무가 지닌 속성을 작품의 주제화 한 작품에 한정하고, 셋째 우리나라 고전문학작품에 한정한다.⁸⁾ 이에 따라 古典詩歌로서는元

- 1) 許慎『說文解字注』에 “竹冬生草也 故字從倒草” 라고 말한 것은 당시대 글자 모양으로 보아 “竹”이라는 글자의 象形이 “艸”라는 글자를 거꾸로 쓴 것 같아서 그렇게 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 2) 『晉書』기록에 의하면 4세기 경 대나무를 몹시 사랑한 東晉의 서예가 王徽之(344~388; 王羲之의 아들)가 “何可一日無此君耶”(이 친구 없이 어찌 하루라도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竹을 “此君”(敬語로서의 “이 친구”)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후 동양의 문인들이 글을 쓸 때 대나무를 자주 此君이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고려 문인 李穡의 <此君樓記>, 조선 후기 문장가 金邁淳의 <此君軒記> 이외에도 작품 가운데서 자주 쓰고 있다.
- 3) 金邁淳의 <此君軒記>라는 글에서 대나무를 妬母草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나무 순이 어머니의 키를 시샘하여 빨리 자라서 어머니와 竹筍이 어머니의 키를 시샘하여 빨리 자라 어머니 처럼 되겠다는 뜻에서 “妬母草”라고도 불렀다고 한다.
- 4) 丁壽岡의 <拖節君傳>은 조선 연산군 ~ 중종 연간에 丁壽岡이 지은 假傳體 文學이다. 대(竹)을 절의를 품은 君子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月軒集』 卷五.
- 5) 慧謙의 <竹尊者傳>에서 대나무에 대한 존경의 뜻으로 尊者를 붙여 “竹尊者”라 일컬었다.
- 6) 唐나라 시인 李白이 대를 의인화하여 시를 지어 “開門風動竹 疑是故人來”(문을 여니 바람에 대나무가 흔들려, 혹은 옛 친구가 찾아 왔나 했네)라고 하였다. 李白이 대를 “故人”(옛 친구)라고 한 데서 이 말이 비롯하였다.
- 7) 김광순(1977: 86-94)
- 8) 대나무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은 시조, 가전, 의인소설 등 여러 장르를 망라하여 수백 편에 달한다. 예컨대 <竹夫人傳> 등은 대나무 그 자체가 중심 소재가 된 것이 아니고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소재로 한 까닭에 제외하고, 비록 <管子虛傳>과 같이 대나무 자체를 의인화하고 그 자체가 중심 소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절군전> 등과 같은 작품은 다루고자 하는 작품과 유사 유형이므로 차후의 연구로 넘기고 대표적으로 이와 같이 네 작품만 다루었음을 밝혀둔다.

天錫의 <絶義歌>, 尹善道の <五友歌>(竹), 古典散文으로 慧謙의 <竹尊者傳>, 丁壽崗의 <抱節君傳> 등이 그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보아 이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이들 작품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作家研究나 작가의 一群作品研究에서 포괄적이거나 부분적으로 고찰해왔고, 김광순 교수에 의해 <抱節君傳>만이 개별적인 작품으로 연구되었다.⁹⁾

본고는 文人들에 의해 대나무의 어떤 속성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었는지, 곧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어떠한 문학형태로 형상화되어 어떤 의미를 띤 문학작품이 되었는지에 대한 탐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관념화한 대나무의 德性

2.1. 淸德의 竹

대나무의 속성을 淸德으로 보기도 하였다. 여기서의 淸德은 맑은 덕으로서 富貴, 榮華와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德性이다. 대나무를 三淸友, 雙淸, 四淸, 五淸 등 “淸”자를 넣어 呼稱한 것은 대나무의 맑은 덕, 곧 淸德의 속성을 의미하였다고 할 것이다. 三淸友는 맑은 세 벗으로 竹, 松, 梅요, 雙淸은 맑은 德性의 쌍벽으로 竹과 松이요, 四淸은 네 가지 맑은 德性을 지닌 것으로 梅, 蘭, 竹, 石이요, 五淸은 다섯 가지 淸德을 지닌 것으로 梅, 松, 竹, 蘭, 石이다.

四君子 가운데 대나무는 “竹之淸”이라 하여 淸德(맑은 덕)을 말한다.¹⁰⁾ 花菴 宋栳(陀)(1567년~1597년)는 “花木二十八友”에서 대나무를 “淸友”라고 하였다.¹¹⁾ <竹尊者傳>을 지은 慧謙스님은 『眞覺國師語錄』에서 대나무의 좋은 德性 가운데 하나로 “其韻淸涼”이라 하여 “맑고 서늘함”을 말한 바 있다.¹²⁾ 고

9) 김광순(1977)

10) 梅蘭菊竹의 德性을 상호 대조하여 梅之韻(매화의 운치), 蘭之香(난초의 향기), 菊之潤(국화의 운기), 竹之淸(대나무의 맑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대나무는 大夫의 氣概이 있다고도 한다. 즉, 梅花는 처사의 아취가 있고, 蘭草는 왕자의 향취가 있으며, 菊花는 傑士의 풍도가 있고, 대나무는 대부의 기개가 있다.(梅有處士之趣, 蘭有王者之香, 菊有傑士之風, 竹有大夫之氣). 여기서의 大夫는 벼슬 이름으로서의 大夫가 아니고 大丈夫, 혹은 丈夫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竹尊者傳>에서도 소나무를 “時稱大丈夫”라고 하였다.

11) 姜希顔, 『養花小錄』참조.

12) “其韻淸涼”이란 말은 眞覺國師 핵심이 대나무의 德性을 칭송한 것으로 『眞覺國師語錄』(월정사, 1940)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려시대 文人인 李仁老는 그의 記文 <竹醉日移竹>이라는 글에서

쇄~쇄~하는 소리와 두터운 그늘과 저녁의 그림자는 달빛을 희롱하며 특히 서늘한 모습이 눈에 덮여 있을 때 가장 좋은 경치가 된다.¹³⁾

라고 말하였다.

대나무의 淸德은 대나무의 속이 비어 있는 상태라서 더욱 德性스럽다. 비어 있는 성질, 곧 虛心은 세속의 물욕을 비운 모습이다. 이것을 관념화하여 정신적인 德性인 淸淨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예컨대 眞覺國師 慧謙이 대나무의 성질을 “虛心應物”이라고 말한 것, 곧 “마음을 비우고 사물이 응하는” 德性이 있음은 物慾에 초연한 淸淨한 속성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¹⁴⁾

淸涼과 虛心이라는 대나무의 淸德은 세속적인 富貴나 榮華와는 정반대되는 의미로 인식해 왔다. 蘇東坡는 일찍이 <於潛僧綠筠軒>에서 富貴榮華와 상대되는 대나무의 고상한 淸德을 노래한 바 있다.

可使食無肉	고기 없이 밥을 먹을지언정
不可居無竹	사는 곳에 대나무 없으면 살 수 없지.
無肉令人瘦	고기 없으면 사람이 야윈 뿐이지만
無竹令人俗	대나무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하네.
人瘦尚可肥	사람이 야위면 살찌면 그만이지만
士俗不可醫	선비가 속되면 고칠 길이 없다네.
傍人笑此言	옆 사람이 이 말을 비웃고
似高還似癡	고상한 척하며 나를 어리석다고 하네.
若對此君仍大嚼	만약 대나무를 대하면서 고기도 먹을 수 있다면
世間那有揚州鶴	세상에 양주학이라는 말이 어찌서 생겼겠는가? ¹⁵⁾

<於潛僧綠筠軒>을 줄여 <綠筠軒>이라고도 하는데, 於潛縣에서 수행하던

13) 『東文選』

14) 본고의 연구 대상작품은 아니지만 <管子虛傳>에서의 “管子虛”도 속이 빈 성질로 말미암아 붙인 命名이라고 할 수 있다.

15) 『東坡詩集』, 『古文眞寶』

승려가 자신의 거처에 붙인 명칭으로 綠筠軒은 ‘푸른 대나무 집’이라는 뜻이다. 於潛縣은 지금의 중국 浙江省 杭州에 속한 곳이다. 이 작품은 四君子의 하나로 꼽히는 대나무를 빌어 선비의 物慾에 대한 경계를 노래하고 있다.

작품 안에서 고기반찬에 좋은 음식은 부귀영화의 삶을 의미한다면, 푸른 대나무 집은 물욕을 비우고 절개를 지키는 사는 선비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德性으로 본다면, 고기반찬이 富貴라면 대나무 집은 淸德이다. 富貴와 淸德은 양립할 수 없다. 이 시에서 楊州鶴이란 말은 淸德을 지키면서 富貴까지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인간의 세속적인 욕망을 嘲笑의 으로 경계한 것이다.¹⁶⁾

무릇 대나무가 淸德을 띤다고 말하는 이유는 대나무의 淸涼과 虛心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을 인격화하여 인간의 맑고 깨끗한 德性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대나무의 淸德은 반세속적인 淸白을 지향하는 참인간적인 德性으로 의미가 부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나무의 淸德은 일찍이 君자의 표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공자는 『詩經』 衛風에서 대나무를 君자에 비겨 칭송한 바 있다.

瞻彼淇奥	기수 저 너머를 보라
綠竹猗猗	푸른 대나무 청초하고 부성하구나.
有匪君子	빛나며 고아한 군자 바로 거기 있도다.
如切如磋	깎고 갈아낸 듯,
如琢如磨	쪼고 다듬은 듯.
瑟兮僴兮	엄숙하고 당당한 모습이여,
赫兮喧兮	빛나고 의젓한 모습이여.
有匪君子	빛나며 고아한 군자 바로 거기 있도다.
終不可諼	결코 잊지 못할 모습이로다. ¹⁷⁾

16) 『古今事文類聚』 鶴條. 옛날에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의 소망을 이야기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楊州 刺史가 되고 싶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많이 얻기를 바랐으며, 어떤 사람은 鶴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神仙이 되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지막 사람은 자신은 양주의 자사가 되어 십만貫의 돈을 허리에 차고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고 하였다. 부귀공명을 모두 누리고 신선까지 되고 싶다는 욕심을 드러낸 것인데, 이는 인간세상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헛된 욕망이다. 楊州鶴이라는 말은 이를 수 없는 헛된 욕망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17) 『詩經』

孔子가 周武王의 학덕과 인품을 기려 그를 대(竹)의 늙음하고 淸節한 君子 然한 모습에 비유한 것이라고 전한다. 대나무를 군자라고 기림을 받는 이유를 唐나라 詩人 白居易의 <養竹記>라는 글에서 대나무는 여물고, 바르고, 속이 비고, 곧음의 네 가지 속성이 있어 어진 사람을 닮아 군자는 대를 심어 집안의 나무로 삼는다고 하였다.¹⁸⁾ 안축의『謹齋集』에 실린 <臨瀛公館墨竹屏記>에 대의 성질을 표현하고 그로부터 인간으로서 본받을 점을 말하였다.

대개 竹의 물건됨이 맑아서累가 없고, 굳어서 변치 않고, 비어서 용납하는 것이 없고, 곧아서 의지하지 않음으로 古今の 賢人 君子가 사랑하지 않은 이가 없다.(中略)..... 지금부터 이 공관에 이르러 이 병풍 밑에 있는 자는 대의 맑음(淸)을 보고 염치를 생각하여 백성의 재물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대의 굳음(固)을 보고 節義에 힘써 지켜야 할 바를 비꾸지 않을 것이요, 대의 빈 것(空)을 보고 너그럽고 넉넉하게 무리를 용납하여 까다롭고 사나운 마음이 없어질 것이요, 대의 곧은 것(貞)을 보고 시속에 따라 아부하지 않고 깨끗하게 홀로 설 것이다.

이와 같이 古來로부터 哲人이나 文人들은 맑음, 굳음, 속비움, 정절 등의 대의 성질을 관념적으로 인격화하여 대나무를 淸德을 지닌 君子로 인식하였음을 볼 수 있다.

2.2. 孤節의 竹

대나무는 줄기는 곧게 뻗어 있고 마디가 뚜렷하다. 마디와 마디 사이에 속이 비어 있어 대통을 이루며 마디는 막혀 있어 강직함을 유지한다. 줄기는 옆으로 빛나감이 없이 세로로 잘 쪼개진다. 風雨寒雪에 유연하게 휘어지되 결코 굽어진 채로 자라지 않는다. 잎은 사철 푸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先人들은 강직한 지조를 지닌 선비나 정숙한 절개를 지닌 부인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¹⁹⁾

이러한 지조와 절개는 오로지 홀로 깨끗한 고상한 절개를 지닌 德性이라 하여 孤節이라고 하기도 한다. 孤節은 不義, 不正, 變節 등과 상대적인 뜻을 지닌 德性이다. 일반적으로 대쪽같은 사람이라는 말 역시 불의나 부정과는 일체 타

18) 이상희(1998: 496) 재인용.

19) 전통 초례상에 대나무를 장식하는 것은 夫婦間的 절개를 지키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협하지 아니하는 지조가 굳은 사람을 의미한다. 眞覺國師 혜심도 대나무의 十德 가운데

守節忍寒(절개를 지켜 추위를 참는다)(〈竹尊者傳〉)

라고 하였으니, “舉世皆濁 我讀清, 舉世皆醉 我獨醒”이라고 한 屈原 <漁父辭>의 구절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草木이 추운 겨울에는 變色하여 落葉으로 지고 말지만 대나무는 오로지 常靑이다. 그것을 孤節의 德이라고 할 수 있다.

3. 대나무의 문학적 형상화 과정

대나무의 여러 가지 呼稱에서도 그 성질을 이해하고 그 德性을 인식하고서 의인화하여 명명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淸德과 孤節을 관념화한 대나무의 德性이라고 살핀 바 있다.

사물의 性質이 추상적으로 관념화되고, 그 관념이 다시 擬人化되어 인간적인 德性으로 轉化(transfer)된다. 대나무의 경우는 이렇하다. 대나무는 늘 푸름, 맑음, 서늘함, 바름, 곧음, 굳셈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로 인하여 淸德, 孤節, 正直, 剛健, 義理, 不變, 眞實 등의 추상적인 관념화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선비, 君子, 大夫, 志士, 忠臣, 烈士(烈婦), 高友 등으로 의인화되어 인간적인 德性으로 轉化된다. 屈從하지 않은 正直을 대나무의 속성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테면 秦나라 叔孫通에 대하여 司馬遷은 그를 君子로 칭하면서

옛말에 군자는 정직하긴 해도 경직되지 않고, 명민하긴 해도 굴종하지 않고, 곧긴 해도 굴곡을 회피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마 숙손통과 같은 처신을 두고 한 말하는 것이다.²⁰⁾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君子 이외에도 “竹有大夫之氣”라 하여 大夫의 기상을 말하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志士, 선비, 충신, 열사 등으로 인간화되기도 한다. 그같은 인간

20) 령청진 편저, 장연 역(2003; 72).

적인 德性을 <絶義歌>, <抱節君傳> 등으로 작품화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심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대나무가 문학적으로 [표 1]과 같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

植物(異稱)	性質	추상화된 관념	人間像	작품화
대나무 (此君, 妬母草, 抱節君, 竹尊者, 故人 등)	푸름(靑) 맑음(淸) 서늘함(涼) 바름(正) 곧음(直) 굳셈(剛) 등	清德 孤節 正直 剛健 義理 不變 眞實 등	선비 君子 大夫 志士 충신 烈士(烈婦) 高友 등	<絶義歌> <五友歌> <竹尊者傳> <抱節君傳> 등

그러면 구체적으로 작가들은 대나무의 어떠한 속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인간의 정신적인 미덕으로 관념화하고 다시 인간상으로 擬人化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였는지를 一瞥해 보기로 한다.

3.1. <絶義歌>

대는 風霜과 氷雪에도 곧다. 빙설이 대나무 위에 쌓여서 잠시 대가 휘어져 있다고 해도 대나무를 굽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언제나 歲寒孤節이라 하여 그 德性을 칭송한다. 麗末에 원천석(元天錫: 1330 - ?)이 지은 시조 이른바 <絶義歌>에

눈마자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 던고
구불 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 孤節은 너 썬인가 흐노라.²¹⁾

耘谷 元天錫은 일찍이 이방원(조선 태종)의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21) 『靑丘永言』, 『樂學拾零』.

가 망하자 절의를 지켜 치악산에 들어가 농사지으며 부모 봉양에 힘썼다. 1400년 태종 이방원이 즉위하여 자주 벼슬을 내려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의 시조 <懷古歌>에서도 만월대에 秋草의 무성함을 통하여 고려 왕조의 멸망에 대한 무상함과 회고를 읊고,²²⁾ <村舍>라는 그의 칠언절구 漢詩에서도 고려 왕조의 쇠잔함을 아쉬워한 바 있다.²³⁾

이 작품은 눈 맞아서 다만 휘어질 뿐 결코 굽어(曲) 자라지 않는 대나무의 歲寒孤節을 읊은 시조이다. 이 시조의 초장에서 눈이 쌓여 잠시 휘어져 있을 뿐, 언제나 곧은 대를 누가 굽었다고 말하느냐고 反問하고, 이어서 종장에서

구불 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라고 하여 “굽을 節이라고 한다면/ 눈 속에서 푸를 리가 있겠느냐?” 假定法에서 假定節을 앞세워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가 어찌 굽어질 리가 있겠느냐?”라고 다시 反問하듯 反語法으로 표현하여 대나무의 不曲(곧음)과 常靑(푸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종장에서 歲寒孤節은 오로지 대나무라고 하여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함으로써 작가의 대나무에 대한 강한 찬양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작품 안에서 대나무의 사철 변치 않는 생태적인 성질이 강직, 절개, 정의로 관념화되어 淸德과 孤節을 지닌 志士가 되었다. 志士는 다시 “너”로 의인화하여 작품 안에서 표현되었다. 원천석의 삶과 그의 인생관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한다면, 의인화된 “너”는 왕조가 바뀌어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忠臣 不事二君이라는 정신을 지닌 忠臣이다. 二人稱 “너”는 작중화자의 분신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나무와 작가 자신이 동일시(identification)되어 있다. 고려 왕조의 忠臣으로서 결코 절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대나무처럼 사는 자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22)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대도 추초로다/ 오백년 왕업이 목적에 붙었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23) 邦本旣殘誰顧念/ 却嗟曾本入桃園

3.2. 〈五友歌〉(竹)

孤山 尹善道는 1612년(광해군 4) 진사가 되고, 1616년 성균관 유생으로 權臣 李爾瞻 등의 횡포를 상소했다가 함경도 慶源과 경상도 機張에 유배되었다. 1623년 仁祖反正으로 풀려나 義禁府都事가 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낙향, 여러 관직에 임명된 것을 모두 사퇴했다. 1628년 42세 때 別試文科 初試에 壯元及第하고, 王子師傅가 되어 鳳林大君을 輔導했다. 1629년 刑曹正郎 등을 거쳐 1632년 漢城府庶尹을 지내고 1633년 다시 增廣文科에 급제, 文學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고 파직되었다. 1636년 丙子胡亂 때 의병을 이끌고 강화도로 갔으나 회의를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주도로 항해하다 보길도에서 은거하였다. 하지만 병자호란 당시 왕을 호종하지 않았다 하여 1638년 胤德에 유배되었다가 1년 뒤에 풀려나 해남으로 돌아갔다.

윤선도는 1642년(인조 20) 전라도 해남 金鎖洞에 은거하면서 〈五友歌〉 6수를 지었다. 序詞에 해당하는 첫수에서 다섯 벗을 말하였다. 다섯 벗으로 수(水)·석(石)·송(松)·죽(竹)·월(月)에 대하여 각 1수씩 읊었다. 둘째 수는 風雲과 대조하여 물의 그침 없음(不斷)의 을, 셋째 수는 花草와 대조하여 바위의 변함 없음(不變)을, 넷째 수는 꽃 피고 잎 지는 나무와 대조하여 눈서리를 모르는 소나무의 뿌리 깊음(深根)을, 다섯째 수는 나무도 풀도 아니면서 곧고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의 늘푸름(常青)을, 여섯째 수효는 작지만 밤에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춰주는 달의 말없음(無言)을 읊었다.

그는 역시 자연사물에 대한 관찰을 통해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관념적인 의미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인간의 德性和 관련시켜 이상적인 인간상과 결부시켰다. 〈五友歌〉 가운데 竹에 대한 시조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
꽃기는 뒤 시기며 속은 어이 뷔연논다
더러코 스시에 프르니 그를 도하 흐노라.²⁴⁾

고산 윤선도가 다섯 벗(五友) 가운데 대를 벗으로 삼은 것은 正直, 虛心, 常

24) 『孤山遺稿』 권6 하에 실려 있는 <山中新曲>가운데 수록.

淸이라는 생태적 특성에서 비롯하였음을 알 수 있다.²⁵⁾ 作中에 각각 “꽃기”는 正直, “속이 빔”은 虛心, 四時에 푸름은 常靑을 뜻하고 있다. 정직, 허심, 상청은 굳은 절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관념화되어 孤節과 淸德의 德性을 지닌 작자의 다섯 벗(五友) 가운데 하나의 벗으로 의인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대나무는 四君子의 하나로 옛 선비들의 굳은 절개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사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대나무는 중국 판나라 戴凱之가 쓴 『竹譜』에 의하면 식물의 한 종류로서 대나무라는 것에 대하여

不剛不柔 강하지도 않고 유하지도 않으며,
非草非木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다.²⁶⁾

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착안하여 윤선도가 대나무에 대하여 “나모도 아닌 거시 풀도 아닌 거시”라고 표현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花菴 宋栳(陀)(1567년~1597년)의 作으로 알려져 있는 대나무에 대해 읊은 五言絶句 漢詩에서도 이같이 언급되고 있다.

非草亦非木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닌 것이
歲寒獨也靑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홀로 푸르네
無人君不重 그대를 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十尺見亭亭 십척 큰 키로 솟아 보기에도 깨끗하네.²⁷⁾

『說文解字注』에서는 풀로 본 것처럼 보이고, 식물학자들은 대나무가 벼목, 벼과, 대나무아과에 속하며 몇 십년이 지나도 줄기가 살아 있고 매년 새로운 가지가 돌아나고 단단한 목질부를 가진 점에서 나무로 보는 경향도 있다. 최근의 생물학자들은 이것을 나무로 보는 경향이 많으나, 대나무가 나무냐 풀이냐

25) 작품에서 작가의 五友는 <五友歌> 序首에서 “나의 벗이 몇이나 있느냐 헤아려 보니 물과 돌과 소나무, 대나무로다. 게다가 동쪽 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라구나. 그만 두자, 이 다섯 가지면 그만이지 이 밖에 다른 것이 더 있은들 무엇하리?”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水, 石, 松, 竹, 月의 다섯 벗이다.

26) 『竹譜』.

27) 『養花小錄』.

하는 의문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²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대나무가 나무나 풀이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를 묘하 好노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작자는 대나무를 좋아한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그 식물을 벗으로까지 여기는가?

꽃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뷘연ندا/ 더러코 스시에 프르니 그를 묘하 好노라.

에서 살필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나무가 “꽃기”, 즉 곧음이요, “뷔연ندا”, 즉 속이 빘이요, “스시에 프르니”, 즉 늘푸름의 德性을 지닌 까닭이다.

대나무를 좋아하는 중요한 이유를 “나무도 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라고 시작하는 양보문으로 표현하였다. 을 만들었다. “-口에도 불구하고”는 관용적인 양보표현으로 실체성을 담보로 하고 이어지는 절 “곧기도 하고 속도 비었다”라는 결정성을 확보하고 있다.²⁹⁾ 이러한 표현기법은 “-口에도 불구하고” 곧기가 草木 못지않게 剛直하고 속된 티가 없이 마음을 깨끗이 비움(虛心)이라고 하는 결정성을 얻어 여기서 작가는 특히 강조하는 의미를 드러낸다. 剛直과 虛心에다가 더욱더 중장에서 “더러코 스시에 프르니”라고 하여 常靑하기 때문에 작중화자는 “그를 묘하 好노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대나무를 좋아하는 이유를 漸層法으로 처리함으로써 강조의 묘미를 한껏 살린 것이다.

<五友歌>는 정치적인 반대파들로부터 論斥을 받아 1년간 영덕에서 유배생활을 마치고 고향 해남 금쇄동에 은거하던 시기(1642년:인조 20년)에 지었다.³⁰⁾ 이 시조에서 작가는 대나무가 非木非草이지만 剛直·虛心한 성질이 있고 四時에 常靑을 버리지 않아서 그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인간의 보편적 윤리 덕목보다는 특별히 신하로서의 도리, 즉 忠의 개념이 우선시되고 있다. 비록 반대파들에 의해 내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가 자신의 忠에 대한 강한 의지를

28) 국립전주박물관 『우리 文化 속의 대나무』(2002: 28).

29) 서정섭(1991:159) 참조. 이러한 표현법은 “그가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그를 사랑하겠다.”라는 양보 표현으로 그것은 화자의 강한 의지를 표출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30) 그는 치열한 당쟁으로 일생을 거의 벽지의 유배지와 고향 은거지에서 보냈다. 병자호란 직후의 유배 뿐 아니라 書院 撤廢를 놓고 西人 宋時烈 등과 논쟁, 탄핵을 받고 삭직당했다. 1657년 中樞府僉知事에 복직되었다가 1659년 慈懿大妃의 服喪問題를 가지고 서인의 세력을 꺾으려다가 실패하여 1660년 三水에 유배당하였다.

不變性, 剛直性, 節操性을 자연물인 대나무에 비겨 표현하고 있다.

작자는 대나무의 剛直, 虛心, 常靑의 성질을 불변성, 강직성, 절조성으로 관념화하고 孤節의 忠誠스러운 신하로 인격화하였다. 작자 자신이 바로 대나무 처럼 변치 않는 굳은 충성심을 지녔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나무를 작자 자신에 은연중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 〈竹尊者傳〉

眞覺國師 해심의 〈竹尊者傳〉은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쓴 假傳文學이다. 번역문은 이러하다.

존자의 성은 소, 이름은 쇤연이다. 자는 차군으로 장사의 할아버지요 옥천의 아우이다. 그 부모의 본관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위수 물가의 상강의 언덕에서 놀기를 좋아하여 풍월에 아련히 취하고 눈서리를 한껏 들이켜 그 몸은 차디차고 정신을 해맑았으며, 그 절개·기조는 높고 원대하였음을 대개 알 만하였다.

당나라 때의 소황, 송나라 시절 노천·문여가와 우리 고려의 정공 등이 다 그를 알아주는 지기의 벗이었다. 가장 두텁고 또 가까운 데다가 실제의 모양을 그대로 그려낼 줄 알았으니, 그 그려내는 바를 세상에서 진기하게 여겼다.

손자의 덕은 이루 다 적을 수가 없거니와, 대략 헤아려 보면 열 가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문득 빼어난 것, 둘째 점차 늙어가면서 다시 강성하여진 것, 셋째 지니고 있는 이치가 조화롭고 곧은 것, 넷째 운치가 맑고 서늘한 것, 다섯째 그 소리의 사랑스러움, 여섯째 그 얼굴이 불만한 것, 일곱째 허심으로써 사물이 응한 것, 여덟째 지조를 지켜 추위를 견디는 것, 아홉째 우리나라는 맛으로써 사람을 먹여 기르는 것, 열째 쓰임새가 많아 세상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었다.

때로 이바지하는 바가 있어 상서로운 붕을 불러들이고 혹은 신통력을 나타내는 데 가서는 흥명한 용을 사그라뜨려 변화케 하였다. 비록 그 어는 땅에 있더라도 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항상 승승사에 머물러 지냈다.

당시의 사람들이 존자라는 호를 바쳤는데, 어떤 이가 묻기를

“존자라 일컬어진 이상엔 그 이치로 보아 마땅히 얽힘이 없어야 되겠거늘 어이 타 이비의 눈물을 문득 받아들였던 말인가?”

하매 그 대답인 즉슨,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절로 마르기를 기다리는 법, 하물며 눈물 자국이 아롱진

것이야?” 하였다. 다시 묻고 대답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지혜의 힘과 요기 넘치는 과단성이면 남으로부터 속임을 받지 아니한다 했는데, 어찌다 왕의 덕화를 가지고도 동마적을 받게 되었나뇨?”

“나의 도의 원대함을 알고자 한다면 물의 본질과 어긋나선 아니 되네.”

“한 번 깨달았을진대 영구토록 깨달아 다시는 의혹됨이 없어야 하겠거늘, 어찌 5월 13일이면 미혹에 해매이나뇨?”

“그대는 듣지도 못했는가? 위대한 지혜란 어리석음 같다 함을?”

“일찍이 향엄한 노인을 위해서 열었거늘, 어찌 다시 요문에 감추나뇨?”

“나 지금 설함이 없는 설을 설하노니, 그대도 들음이 없는 들음을 들을지라.”

“산음의 은사 무엇이라 했더뇨? 하루도 이 사람이 없어선 안된다 했는데……”

“진실하며 착한 벗과의 잠깐 이별에 조바심 처짐은, 까닭도 없이 우러나는 속정의 향기거늘……”

“바닷가 저 언덕 외롭게 떨어진 곳에 보타락가산이 있는데, 어떠한 부처의 일도 도와 일으키려 푸른 바위 새에 지쳐서 서 있나?”

“나날이 감로수에 젖고 때때로 범패 낭독 일삼네. 미미한 물방울 잔 먼지도 바다를 돕고 큰 메에 이바지하나니, 애오라지 보태리라, 관세음의 대자대비.” “자리를 피해 치욕을 멀리하면 지인이라 이름할 수 있는 것. 어이하면 철면을 돋보여 우리 스승 진면목을 무너드릴까?”

“해탈하여 문수를 칠 때 대장부라 일컫고, 운문이 석가를 몽둥이 칠 적에 참된 일가를 이룩했다 일컫는 것. 저쪽에 진작 교만심이 엮어진 마당이면 내 또한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일 없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이를 것이면 장차는 은혜를 갚을 수 있으리.”

“정인의 이른바 ‘차군이 내 설법을 맡아 대신하였다.’ 하니 모르외라, 어떤 설법을 대신했다 함인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괴로운 열뇌를 없애주니 다름 아닌 온몸으로 행하는 장광설이거니.’

“항시 마음은 한 가지만을 지켜 그 바탕을 바꾸지 아니한다 했는데, 무슨 까닭에 청평원 속에선 짧았다 길었다 하고, 다복사 가운데선 굽었다가 한 번 곧았는가?”

‘곡도 한갓 이러하고 직도 한갓 이러하며, 장단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뿐임은 생각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것!’

그가 사람과 마주하여 입기로 응변함이 대개 이러하였다.

홍각은 그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높다란 절개 흰칠한 몸/ 늙어도 시드는 법이 없어/ 한평생 풍골은 절로 말고
 야위었다./ 그대 아끼는 맘/ 긴 대를 일러 존자라 높이니/ 어이없다 매운 계절의
 저 소나무, 대부의 노릇이 우습고야/ 갖이 참하던 목상화는 보이지 않고/ 부질없이
 석어도만 남아 설법을 듣는구나/ 가을 빛 가져다가 바리때 공양할 새/ 달이며
 바람이며 배부를 게 무엇인가」

무의자가 또한 기축년 겨울에 시를 지어 찬하노라.

「나, 죽존자의/ 세한 추위며 여름날의 더위에 끄덕하지 않음을 사랑하노니/
 해가 거듭될수록 절개 더욱 힘쓰며 오랜 세월 흐르도록 허심 더욱 하였다/ 달빛
 아래 맑은 그림자를 놓하고/ 바람결에 불경 노래 부친다./ 머리엔 하양 눈발을
 이고/ 그윽한 정취 우거진 숲 가운데 일어난다.」

그 아들에 옥판장로가 있었는데, 동파 및 기지의 무리가 그를 찾아가 싯도록
 함께 지내다가 가버렸다고 한다.³¹⁾

眞覺國師 慧謙은 1178년(고려 명종 8년) 출생하여 1234년(고려 고종 21년)
 까지 살았던 스님이다. 호는 無衣者, 성은 崔, 이름은 寔, 進士 旣로 의 아들이다.
 司馬試에 합격하였으나 조계사의 知訥禪師의 영향을 받아 佛門에 들어갔고
 1210년 지눌선사가 죽자 왕명으로 修禪寺에 들어가 지눌의 뒤를 이어 조계종
 의 2세가 되었고, 고종이 즉위하자 禪師를 거쳐 大禪師가 되었다. 1219년 수선

31) 번역문은 김창룡(2006上: 43-49) 참조. 다음의 原文은 중국문화대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편(1980 권6: 112-113)과 김창룡(2006上: 43-49) 참조.

尊者姓蕭 諱洒然 字此君 長沙之祖 王泉之弟 其父母貴鄉 莫得而詳 好遊渭水之濱 湘江之岸
 酣風醉月 飽雪饒霜 則其骨冷神清 節高調遠 概可知也 唐之蕭悅 宋之老皇 文與可 本朝丁公等
 皆知音也 最厚此親 又能寫眞 其所寫者 世以爲珍 尊者之德 不可勝記也 略計有十種 一纓生便
 秀 二漸老勁剛 三其理調直 四其清涼 五其聲可愛 六其容可觀 七虛心應物 八守節忍寒 九滋味
 養人 十多材利世 有時辨供 能招瑞鳳 或處現通 解化獅龍 遍界分身 而常住崇勝寺 時人獻尊者
 之號 或問旣稱存子 理應無累 云何却受二妃之淚 曰睡面待自乾 況是淚痕斑 問智力勇果 不受
 欺詐 云何容受王化銅馬 曰欲知吾大道 不與物情背 問一悟永悟更不疑 云何五月十三迷 曰君
 不聞乎 大智如愚 問曾爲香嚴老 開何秘要門 曰我今無說說 汝可不聞聞 問山陰隱士云何去 不
 可一日無此君 曰應恐暫離眞善友 無端惹得俗情薰 問海岸孤絕處 補陀洛迦山 助揚何佛事 侍
 立碧岩問曰 日日霑甘露 時時作梵音 涓塵補海岳 聊助大悲心 問避地遠恥辱 可名爲智人 胡爲
 秀鐵面 漫壞吾師眞 曰解脫打文殊 時稱大丈夫 雲門棒釋迦 世號眞作家 彼旣非憍慢 我亦無慙
 赧 可謂知恩人 方能解報恩 問淨因云 此君代我說法 未審代說何法 曰令人見則祛煩熱 便是渾
 身廣長舌 問所守恒一 不易其質 何故 清平園裡 或短或長 多福寺中 一曲一直 曰高節長身老不
 枯 平生風骨自清癯 愛君修竹爲存者 却笑寒松作大夫 未見同參木上座 空餘聽法石於菟 戲將
 秋色供齋鉢 抹月批風得飽無 無衣者亦於己丑年冬有詩贊曰 我愛竹尊者 不容寒暑侵 年多彌
 勵節 日久益虛心 月下弄清影 風前送梵音 皓然頭載雪 標致生叢林 其子有玉板長老 東坡器之
 之輩 嘗訪之飽參而去云.

사에 있으면서 斷俗寺 주지를 겸임하고 나중에 1234년 月燈寺에서 죽었으며 松廣寺에 碑가 있다. 저작에는 『禪門綱要』, 『禪門拈頌』이 있다. 시호는 眞覺, 탑호는 圓炤이다. 고려시대에 國師라고 하면 국가나 임금의 師表가 되는 高僧에게 내리던 칭호로 최고의 법계였으니, 당시 眞覺國師 慧謙스님의 불교계에 서의 품격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의 끝에 詩를 덧붙이면서 “己丑年 冬”에 讚詩를 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축년인 1229년 죽기 5년 전에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40년 月精寺에서 간행된 『眞覺國師語錄』의 附錄으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權相老가 수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가전체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처럼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대나무의 높은 기품에 견주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人間像에 대해 풍자하면서 대나무의 삶의 도를 설파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傳 樣式을 따르면서도

- ① 발단: 家系와 人物 性格 提示 → ㉠姓名, 字號, 家系 等 ㉡性格, 人品 等
- ② 전개: 事件 行績 → ㉠立身行道(學行, 孝行, 道行, 功勳 等)
- ③ 종결: 議論 혹은 讚揚 및 史評(史傳의 本체)³²⁾

조계종 2대 大禪師 작품답게 전제 부분에서는 유교적인 立身行道를 기술하지 않고 불교적인 선문답으로 삶의 道를 표현하고 있다.

<竹尊者傳>의 작품구조는 대개 이러하다.

- ① 발단
 - ㉠ 성은 蕭, 명은 洒然이요, 字는 此君, 長沙姓의 할아버지, 玉泉의 아우, 본관은 米山이다.
 - ㉡ 渭水와 湘江에서 노닐며 풍월을 좋아하고 절개와 지조가 높고 원대하다.
- ② 전개
 - ㉠ 竹尊者는 十德을 지닌다.(一纔生便秀 二漸老勁剛 三其理調直 四其清涼 五其聲可愛 六其容可觀 七虛心應物 八守節忍寒 九滋味養人 十多材利世)
 - ㉡ 辟邪進慶으로 이바지한다.(有時辨供 能招瑞鳳 或處現通 解化獐龍 遍界

32) 김균태(1992: 102)에서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分身 而常住崇勝寺)³³⁾

㉔ 불교적인 禪問答을 하다. (그 내용은 도행이 높아 세상과 어울려 살지 아니하고 절개를 지켜 살면서 오로지 불교에 귀의하여 살고 있다는 것)

③ 종결

㉕ 竹尊者의 삶의 발자취에 대한 讚詩

㉖ 蘇東坡와 같은 高節의 友人들과 어울려 지낸다.

혜심은 <竹尊者傳>에서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그 德性을 찬양하면서 불교 수행자로서 자신의 道를 표출하였다. 어쩌면 대나무와 자신의 삶과 동일시 (identification)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끝에 실린 讚詩에서

我愛竹尊者 내가 竹尊者를 사랑함은
 不容寒暑侵 추위와 더위를 용납하지 앓음일레
 年多彌勵節 해가 거듭할수록 절개 더욱 굳세지고
 日久益虛心 세월이 깊을수록 마음을 비우는 구려
 月下弄清影 달빛 아래 맑은 그림자와 노닐고
 風前送梵音 바람결엔 부처님 말씀을 보내는가
 皓然頭載雪 머리에 하얀 눈을 이고
 標致生叢林 뛰어난 운치를 숲속에 넣는구려.

그의 讚은 대나무의 剛直과 節操, 虛心과 清雅를 讚揚이다. <竹尊者傳>은 혜심스님에 의해 대나무 자체를 소재로 하여 孤節과 清虛의 자체적인 성질이 假傳體에 寄託하여 관념화되고, 그것이 작품화되어 고매한 인간상을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3) 『談聞錄』에 서방 산중에는 장대한 산귀(山鬼)가 살았는데 사람이 그를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병에 걸렸다고 한다. 이에 이진이라는 사람이 이 귀신을 심히 두려워하여 조석으로 대나무를 잘라 불 속에 던져 넣어 대나무가 터지는 소리에 놀라 귀신이 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 辟邪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우리나라 민속에 정월 대보름날 대나무를 태워 소리를 터트리 귀신을 쫓는 것도 이러한 의미와 관계가 있다.

3.4. <抱節君傳>

月軒 丁壽崗의 <抱節君傳>은 대나무를 의인화한 한문본 擬人小說로서 『月軒集』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인 丁壽崗은 자를 不崩, 호를 月軒이라 하고 단종 2년(1454)에 나서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을 거쳐 중종 22년(1527) 추한 사람으로 강원도 관찰사, 예조참의, 형조참의, 성균관대사성, 병조참판, 동지중추부사 등을 지냈으며, 갑자사화, 무오사화, 중종반정, 기묘사화 등 네 차례의 커다란 정변을 겪으며 複雜多難한 일생을 살다간 사람이다.

<抱節君傳>에서는 대나무가 어떻게 작품 소재로 取擇되었는지, 대나무 소재가 어떤 과정을 거쳐 <抱節君傳>의 주제로 형상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포절군이란 이는 기주 출신 사람이다. 그 선조는 황이었는데, 일찍이 해곡 땅에 숨어 세상에 나와 쓰인 일이 없었기에 남들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황제가 울려를 처음 만들 때 제 격에 어울릴만한 자가 누구도 없었기에 그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못내 얻지 못하였다.

황제가 하루는 그이의 소리에 이끌려 해곡 골짜기까지 이르러 무릎을 치며 탄복하였다.

“전혀 뜻밖이구나. 그대가 여기 있다 함은. 어찌 서로 만나봄이 이다지도 늦었을꼬?”

영륜으로 하여금 무릎을 구부려 몸을 낮추는 예의를 차려서 함께 오도록 명하고는 전악의 관직을 제수하였다. 그의 됄됨이로 말하면 나오는 소리가 곧 가락이요, 몸가짐은 절도를 갖추었다.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 전파되자 모두가 그의 맑은 절개를 사랑하였다.

황의 자손은 번성하여 누리에 퍼져 있었다. 위천에 사는 이는 적적이라 했다. 강태공이 처음 보았음에도 오랜 양하여 지기의 벗으로 여기고 붙든 손을 놓지 않은 채 고기를 낚으면서 서로 즐거워하였다. 수양에 사는 자는 고죽군이라 했는데, 그 풍화를 입으면 육식 많은 사내는 청렴해지고 게으른 사내는 뜻을 세웠다. 포절군은 그 끝무렵의 세대였다.

남달리 고고하고 절개로운 뜻이 서 있었음에도 세상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이가 없으며 일찍이 깊이 탄식하기를 ‘어찌 답답하게 오래도록 예 머물 것인가?’ 하고 조래로 옮겨 살아 십팔공(松)과 더불어 방외의 벗이 되고자 하였다.

길 중간에 이르러 기오란 곳에 빼어나게 맑은 터전이 있음을 보고 아우 탁에게

이르기를

“내가 머리털이 나고 채 마르기 전부터 기오가 우리 땅이란 말을 들은 일이 있었다. 내 여기를 놓아두고 다시 어디를 가리?”

하면서 머무르게 되었다. 위에 벼슬하여 절차의 공로가 있었으므로 시인이 그 덕을 노래로 읊었으며, 간책에도 기록하였다.

공자가 『시경』, 『서경』을 산정할 즈음에도 역시 그의 덕을 찬미하였을 뿐 깎아 내는 일은 없었다.

진의 죽림칠현은 포절군이 못 가운데 비범하게 빼어난 재질이 있단 말을 듣고 수병을 들고 술통을 끌면서 찾아 갔다. 그런데 모두들 술에 취한 채 제멋대로 뿔내고들 앉아 있는 품이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포절군이 꾸짖기를

“내 옛 성인의 말씀에 듣기로는 오직 술에 있어서만은 양이 따로 없으되 혼란한 데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였고, 덕을 지켜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소. 우리는 나라의 중신으로서 술에 빠져 주정이나 하고 나라의 정사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요? 나로 말하면 일 년에 한 차례만 취하니 바로 5월 13일이요. 만일 그대들과 함께 있다가 반드시 화가 내 몸까지 미칠 것이요.”

하고, 마침내 황주의 석가산 밑으로 은둔하였다.

일 년 남짓하여 흑제와 동군이 기후를 다투는데, 맹렬한 서리와 매운 눈보라가 번갈아 우뚝한 초목이 우거진 숲에 내렸다. 그러나 포절군은 얼굴 빛 하나 변하지 않고 흑제와 함께 기쁨과 근심을 같이하면서 절의를 고치지 않았다. 소식이 곁에 있다가 이러한 사실을 보고 황제께 이렇게 상주하였다.

‘그의 사람됨은 성품이 굳세고 바르며, 속으로 달통하고 바깥으로 곧습니다. 가는 길이 평탄하던 가파르든 절개를 바꾸지 않으며, 신하들마다 위난의 문제에 닥쳐 거론합니다. 그 뜻과 절의가 몹시 아름다워 가히 군으로 봉할 만하오니, 남의 신하된 자로 난국에 닥쳐서 구차하게 벗어나려 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알도록 하시옵소서. 이런 군은 절개를 지닌 이에게 오히려 큰 상을 베풀지 아니하게 되면 이에 권장과 징계의 방도는 사라지게 되나이다. 옛날 진시황이 태산에 올라 공덕을 노래했을 적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자 소나무 아래 몸을 의지해 쉬었던 일로 인해 그 소나무를 대부로 봉하였거늘, 하물며 이같은 절개를 갖춘 이에게 벼슬을 제수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만약 포절군을 봉하시면 가히 명실이 서로 부합한다 이를 것이옵니다.’

황제가 “좋도다!”하고, 또 특별히 소수와 상수를 내려 사유의 영지로 삼게 하니 당시의 영화로운 화제거리가 되었다.

송나라 때 왕안석이 법을 바꿔 고친 이래로 백성이 원망하고 봉당들은 듣고

어났다. 가물고 건조함이 잇달아서 냇물과 못의 메마름이 어느 때 없이 극심하게 되자, 포절군은 느닷없이 사마상여와 같은 병을 얻게 되어 목이 타서 죽게 되었다.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차군이라고 했다. 성품이 굳고 곧아 사곡되지 않았으니, 당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였다.

‘선친의 뜻을 좇고 그 업적을 떨어뜨리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우리 포절군의 아들이다.’

사신은 이르노라.

「빠른 바람에야 질긴 풀을 알아보고, 세상이 어지러워야 충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은 포절군을 두고 이름이다. 진즉 그 절개를 온전히 한데다가 그 위에 벼슬마져 얻어 온 일새에 꽃다움이 넘쳐 흐르고 여느 초목과 더불어 한데 시들고 지지 않으니, 열장부라 이를 만하다. 이것을 심고 뽑아내지 않는다 함은 맑고 깨끗한 정신을 자손에게 더불어 함께 남으리니, 이른바 ‘천년의 향그러운 이름, 길이 사라지지 안으리라’라고 하는 것이다.」³⁴⁾

<抱節君傳>의 작품구조를 간략히 서술하면 이리하다.

34) 번역문은 김창룡(2006上: 43-49) 참조. 다음의 原文은 중국문화대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편(1980 권6: 112-113)과 김창룡(2006上: 43-49) 참조.

抱節君者 蕪州人也 其先箕嘗隱懈谷 未嘗出爲世用 人不之知 黃帝創始律呂 而無譜之者 故嘗思其人 而未得焉 帝一日聞其聲而至谷 擊節歎曰 不圖君在此 何相見之晚也 伶倫折節下禮與之俱來 授典樂之官 爲人聲爲律 而身爲度 名播人口 皆愛其清節 皇之子孫蕃茂 蟠結天下 居渭川者曰籟籟 太公一見如舊 而爲知音 相遇攜手不釋 釣魚而相樂 居首陽者曰 孤竹君 聞其風者 頑夫廉 懶夫有立志 君其末葉也 有特立孤介之志 而世無知己者 嘗喟然歎曰 安能鬱鬱久居此乎 欲移住徂徠 與十八公爲方外友 至中途見淇澳有清絕之處 謂弟繹曰 我生髮未燥 已聞淇澳是吾地 余舍此而安適 因居焉 仕衛有切磋之功 詩人歌詠其德 而書諸簡策 至孔子刪詩書 亦讚美其德 而不削焉 晉七賢聞君有超凡秀群之才 携壺挈榼而來謁 皆醉酒 放達踞傲無禮 君責之曰 吾聞提古人之言 惟酒無量不及亂 德將無醉 吾子開國之重臣 而沈醉于酒 不顧國政可乎 吾則異於是 一年一醉 乃五月十三日也(竹醉日) 若與君同處 則禍必及己 遂避隱于黃州石假山之下 居歲餘 黑帝與東君爭時候 霜鋒雪鏑 交下叢立之中 君顏色不變 與黑帝同休戚而不改節 蘇軾在側而見之 上奏於帝曰 君之爲人也 其性堅正 中通外直 不變節於夷險 全臣道於危難 志節甚嘉 可封爲君 使爲人臣而臨難苟免者 知所愧也 有此勁節 而不爲之褒賞 則是無勸懲之方 昔秦始皇上泰山頌功德 風雨暴至 休松樹下 因封爲大夫 況有如此之節 而不授之以爵乎 若封爲抱節君 則可謂名實相符也 帝曰可 又特賜瀟湘以爲湯沐邑 時論榮之 宋自王安石變法之後 民怨朋興 旱乾相仍 川澤枯竭 至是極矣 抱節君得相與之疾 渴而死 生一子曰 此君性亦勁直 不曲不邪 時人咸曰 遙追先志 不墮其業 眞吾君之子也 史臣曰 疾風知勁草 世亂識忠臣 君之謂也 既全其節 又受其爵 流芳萬葉 不與草木同凋 可謂烈丈夫矣 樹此不拔之業 清白遺子孫 世封此君當與天地俱存 所謂千載香名 長不泯者也。

① 발단

- ㉠ 抱節君은 蕪州人, 선조는 箕이요 늘 懈谷에 숨어 살면서 세상에 나와 쓰이지 않아 그를 알지 못한다
- ㉡ 황제가 抱節君의 명성을 듣고 懈谷에서 만나 典樂官을 제수하였다.

② 전개

- ㉢ 抱節君의 선조 箕은 자손이 번성하였고, 渭川에 살던 선조 籛籛도 강태공과 벗하며 지냈다.
- ㉣ 抱節君은 나중 이름이고 원래 孤竹君이었는데 염치를 알고 검소하여 그에게 감화를 받아 懶夫조차 뜻을 세우게 되었다.
- ㉤ 고결한 抱節君은 소나무(松)와 벗하고자 조래산에 이주하여 살다가 나중에 淇澳에서 살게 된다.
- ㉥ 衛를 섬김에 切磋의 공이 있어 시인의 죽간으로 사용되고 공자님도 그의 덕을 찬미하였다.
- ㉦ 晉의 竹林七賢이 찾아와 어울렸으나 그들이 술에 취해 방탕하고 無禮하자 꾸짖고서 석가산 아래에 은거한다.
- ㉧ 몇년을 살면서 霜雪이 붙어 닳쳐와 칼날같고 두텁게 쌓였으나 절개를 결코 굽히지 않는다.
- ㉨ 蘇軾이 그의 성질이 견고하고 정직하며 역경에서도 변절하지 않는다고 薦舉하여 上이 그를 抱節君에 봉하고 湯沐邑에 임명한다.
- ㉩ 王安石의 變法 시행으로 旱乾과 枯渴이 심하여 民怨이 朋興한다.
- ㉪ 그는 이즈음 병이 들어 枯死한다.

③ 종결

- ㉫ 抱節君에게 한 아들(此君)이 살아 남는다.
- ㉬ 此君은 강직하고 간사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抱節君 아들답다고 칭찬한다.
- ㉭ 史臣曰 어지러운 세상이라야 충신을 알 수 있음은 바로 抱節君을 두고 한 말이라 하고 芳名이 오랫동안 세상에 남을 것이라고 평한다.

이 작품은 대나무를 擬人인 抱節君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평생토록 변절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선비의 절의를 칭송한 작품이다. 대나무를 擬人한 抱節君의 일대기를 이른바 傳 양식으로 지은 것이다. 작자 丁壽崗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유사하게 꾸며진 것이라서 마치 작자 자신의 自敘傳처럼 보이기도 한다. 김광순 교

수는 그의 생애를 <抱節君傳>의 주인공과 상세하게 대비하고서, 상호 酷似하여 <抱節君傳>은 자신의 생애를 은연중 비유한 것으로, 부연하면 月軒 丁壽崗의 傳記를 주인공 孤竹君의 일대기에 假託시켜, 순차적 구조로 기술한 것이 <抱節君傳>이 아닌가 한다고 하였다.³⁵⁾ 史臣의 評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질풍이 몰아닥쳐야 질긴 풀을 알아보고 세상이 어지러워야 충신을 알 수 있다는 말은 抱節君을 두고 한 말이다.”(疾風知勁草 世亂識忠臣 君之謂也) 라고 한 것으로 보아 대나무는 절개 있는 충신으로 의미가 부여되고 그것은 바로 작자 丁壽崗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³⁶⁾

이 작품은 “皆愛其清節”, “世亂識忠臣”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나무에서 청절의 선비와 정직한 충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傳 양식에 假託하여 “清節의 忠臣”이라는 주제를 함의하면서 擬人小說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抱節君傳>은 고려 후기 의인소설의 형태를 답습한 조선 전기의 작품으로 초기 소설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후대의 韓末 一和선생의 <硯滴傳>이나 山康 변영만의 <施賽傳>과 그 맥락이 이어지는 작품이다. 나무가 지니고 있는 “늘 푸름”(상칭:常靑)과 “굳세고 곧음”(강직:剛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여 지조와 절개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結論

사물의 性質이 추상적으로 관념화되고, 그 관념이 다시 擬人化되어 인간적인 德性으로 轉化(transfer)된다고 볼 때, 대나무는 푸름(靑), 맑음(淸), 서늘함(涼), 바름(正), 곧음(直), 굳셈(剛) 등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로 인하여 淸德, 孤節, 正直, 剛健, 義理, 不變, 眞實 등의 추상적인 관념화 과정을 거치고, 이어서 선비, 君子, 大夫, 志士, 忠臣, 烈士(烈婦), 高友 등으로 의인화되어 문학작품 안에서 인간적인 德性으로 轉化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35) 김광순(1977: 88-94).

36) 孔子는 『論語』에서 “歲寒然後 知松柏之後凋也”(날씨가 차가워진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라고 하여 추위에 견디는 松柏을 끌어들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절개 있는 충신이 더욱 빛을 발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작품에서 대나무의 절개도 이러한 맥락에서 충성스러움으로 의미부여된 것이다.

시조 <絶義歌>는 반어법과 반복법을 통하여 대나무의 剛直과 常靑을 재삼 강조하여 작가의 대나무에 대한 강한 찬양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대나무의 올곧고 푸름으로 사철 변치 않는 생태적인 성질이 강직, 절개, 정의로 관념화 되어 淸德과 孤節을 지닌 志士로 문학적인 再現이 이루어졌다. 작자 원천석의 삶과 그의 인생관에 비추어 작품을 해석한다면, 의인화된 “너”는 왕조가 바뀌어도 두 임금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忠臣不事二君이라는 정신을 지닌 忠臣이요, 작자의 分身이요, 작자와의 동일시(identification)이다. 대나무를 통해 깨끗한 절개를 지키며 은거하는 충신이자 선비의 참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조 <五友歌>(竹)는 초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곧기가 어느 草木 못지않게 剛直하고 虛心을 지녔음을 양보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더욱이 常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漸層法으로 강조하였다. 대나무의 剛直, 虛心, 常靑의 성질을 절개와 충성으로 관념화하고 작품에서 절개 있는 忠臣으로 인격화되고 비유되고 있다. 비록 정치적 반대파들에 의해 내쳐지긴 했지만 그래도 작가 자신의 忠에 대한 강한 의지를 不變性, 剛直性, 節操性을 자연물인 대나무에 비겨 표현한 것이다. 곧, 작자는 대나무의 剛直, 虛心, 常靑의 성질을 불변성, 강직성, 절조성으로 관념화하고, 孤節의 忠誠스러운 신하로 인격화하였다. 작자 자신이 바로 대나무처럼 변치 않는 굳은 충성심을 지녔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대나무를 작자 자신에 은연중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假傳體 文學인 <竹尊者傳>은 헤심스님에 의해 대나무 자체를 소재로 하여 孤節과 淸虛의 자체적인 성질이 假傳體에 寄託하여 관념화되고, 그것이 작품화되어 孤節과 淸虛의 禪師를 창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竹尊者傳>에서 대나무를 의인화하여 그 德性을 찬양하면서 불교 수행자로서 자신의 道를 표출하였다. 어쩌면 대나무와 자신의 삶과 동일시(identification)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다. <抱節君傳>은 대나무를 擬人인 抱節君을 통해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평생토록 변절하지 않고 지조와 절개를 굽히지 않으며 살아가는 한 선비의 절의를 칭송한 작품으로, 대나무를 擬人화하여 일대기를 그려낸 傳 樣式의 擬人 小說이다. “皆愛其淸節”, “世亂識忠臣”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나무의 剛直과 常靑의 성질을 淸節와 忠誠心으로 관념화하여 절개 있는 忠臣으로 의인화시켰다. 작가 丁壽崗이 일생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과

유사하게 꾸며진 것이라서 마치 작자 자신의 自敍傳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바로 작자 丁壽崗 자신의 삶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대나무를 君子, 尊者 등으로 인격화된 別稱으로 부르기도 하듯이, 대나무를 소재로 인격화하여 작가의 중심 생각을 표현한 이상의 문학작품들은, 첫째 대나무 그 자체를 소재로 하고, 둘째 剛直, 虛心, 常靑의 성질을 淸德, 孤節, 忠誠으로 관념화되었고, 셋째 淸德, 孤節, 忠誠의 관념이 志士, 忠臣, 君子로 인격화시켰으며, 넷째 관념화되고 인격화된 대나무가 작가 자신과 同一視하고 자신의 分身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詩經』
『論語』
『說文解字注』
『晉書』
『月軒集』
『唐宋詩選』
『養花小錄』
『眞覺國師語錄』
『東文選』
『東坡詩集』
『古文眞寶』
『古今事文類聚』
『青丘永言』
『樂學拾零』
『孤山遺稿』
『竹譜』
『談聞錄』

- 김광순(1977), 「月軒의 抱節君傳攷」, 『東洋文化研究』4, 경북대동양문화연구소.
김광순(1970), 「抱節君傳에 대하여」, 『語文學』 통권 제 23호, 한국어문학회.
김근태(1992), 「I.傳文學」, 『한국고대소설론』, 새문사.
김준영(1977), 『韓國古典文學史』, 형설출판사.
김창룡(2006), 『韓國의 假傳文學』上.下, 태학사.
령청진 편저, 장연 역(2003), 『智典』2, 김영사.
박노춘(1972), 「假傳體小說 竹尊者傳 水道者傳」, 『승전어문학』1호, 승전대 국어국문학과.
서정섭(1991), 「국어 양보문 연구」, 전북대 대학원 박사논문.

- 이상희(1998), 『꽃으로 보는 韓國文化』3, 넥서스.
- 정주동(1981), 『고대소설론』, 형설출판사.
- 중국문화대학,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공편(1980), 『韓國漢文小說全集』, 중국
문화대학출판부.
- 채성숙(1995), 「한중 죽류가전의 비교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논문.
-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화편(1992), 『韓國古典小說論』, 새문사.
- 한국어문학회편(1975), 『고려시대의 언어와 문학』, 형설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Works exteriorized to Bamboo Shape

Yoo, Jong-K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orean classic literary works to bamboo shape, for example Juleka(絶義歌), Ohwoka(五友歌), Jukjonjajeon(竹尊者傳), Pdjukoonjeon(抱節君傳) etc. This work has found a subject matter from bamboo shape.

All things in nature insist on the nature oneself. Bamboo also has a character oneself. It is always the refrigerant(清涼), blue color of the year(常青), a integrity(剛直), emptiness(虛心) and purity(清淨). This character turns ideation into the moral character, for example a loyalty, a fidelity etc. Its moral character personifies to the ideal human being one more time.

Juleka(絶義歌) based on so-called the blue color of the year and the integrity turns ideation into the loyalty and fidelity. Its moral character personifies to the ideal human being so to speak a loyal. Ohwoka(五友歌) based on so-called the blue color of the year, the integrity and fidelity transfer ideation to the loyalty and fidelity. Its moral character personifies to the ideal human being so to speak a loyal.

Jukjonjajeon(竹尊者傳) based on so-called the blue color of the year and the integrity turns ideation into the loyalty and fidelity. Its moral character personifies to the ideal human being so to speak a loyal. Especially this literary work is reflected of writer oneself a lifetime. He thinks that his life identifies the nature of bamboo.

Pdjulkoonjeon(抱節君傳) based on so-called the blue color of the year and the integrity turn ideation into the loyalty, the fury and fidelity. Its moral character personfy to the ideal human being so to speak a loyal and a wise man. Specially this literary work is reflected of writer oneself a lifetime. He thinks that his life identify the nature of bamboo.

Keywords : a subject matter, bamboo shape, moral character, reflected of writer oneself a lifetime, a wise man.

이 논문은 2010년 7월 2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8월 12일에 심사완료되어 2010년 8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